

News

신한은행, 전세·주택담보대출 금리 최대 0.4%p 더 낮춘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오늘부터 '신한 전세대출' 세 가지 상품의 고정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낮추기로… 다음달 4일부터는 특정 소득 조건 적용 주담대 우대금리도 신설할 예정
금리 상승기 대출자 이자 부담 줄이고, 계속 뒷걸음치는 가계대출 수요 늘리기 위한 조치… 예대금리차 관리 의도도 있어…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수신금리 계속 뛰는 중

KB금융, 대출증개플랫폼 인수 막바지…토스·카카오페이와 승부

헤럴드경제

KB금융, KB캐피탈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비교시장 진출 꾀해… KB캐피탈, 대출증개플랫폼 '알다'를 연내 인수할 계획… 금융위원회 인가 등 고려하면 3~4개월 소요 예상
인수 가격은 100억원 밑에서 협상 중… '알다'는 핀테크 스타트업 팀윙크가 운영해온 서비스로 별도 은행 방문 없이 연계 금융사들의 대출 비교 가능… 손자회사로 플랫폼사 확보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출시…최저 연 4.37% 금리

이데일리

케이뱅크,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사장님 신용대출' 출시…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
대출기간은 만기일시 1년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3년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심사에 활용하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적용된 것이 특징

연일 급등하는 카드채 금리… "수천억대 이익 감소 불가피"

한국경제

AA+등급 여신전문회사채 3년물 금리가 23일기준 연 5.436%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 발표일 21일대비 0.35%p 상승
AAO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동기간 연 5.513%로 뛰어… 카드채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카드사들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한 상황

내년부터 보험사 '유동성 실태평가' 까다로워진다

대한금융신문

금감원, 내년 보험사들에 적용되는 IFRS17 및 K-ICS에 맞춰 일부 경영실태평가 항목 변경 예정… 기존 평가항목인 유동성리스크 비율 삭제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신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바젤III 하에서 은행에 적용되는 LCR과 유사한 개념…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금화 가능한 적정 수준의 자산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

카카오페이손보 출범 코앞… 디지털 3사, 수장 교체 '맞불'

전자신문

카카오페이손보가 다음달 출범 공식화하며 디지털보험 3사를 비롯한 기존 보험사들의 경계감 높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최근 교보생명 출신 새 수장 맞아…
캐롯손해보험, 이달 초 한화생명 출신 새 대표 선임… 대형 손보사들은 펫보험, 골프보험 등 신상품 출시로 맞대응 중… 디지털 보험시장 확대 기대감도 존재

100원만 있어도 투자 OK… 증권사,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본격화

머니S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사, 26일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시작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4일부터 서비스 선보일 예정… 다을, 대신, 유안타, IBK, 상상인 등도 올해 안에 시작 예정… 고객 잡기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및 이벤트 진행 중

키움증권, '카드 비교 서비스' 전면 시행

뉴스

키움증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최초로 카드 비교 서비스 시행… 소비 태그를 40여가지로 구분해 고객에게 맞는 카드 고를 수 있다는 장점
고객의 카드 결제 정보와 은행 적요 등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에 박차… 기존에 제공하던 투자상품 외 대출,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로 강화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